

재산권 침해에 '교권회복' 결의

조계종, '사찰토지 제의' 등 초강수 의미와 파장

10월 15일까지 관철안되면 산문폐쇄 국민 이중부담 공원존폐 중대변수

조계종관료위원회(위원장 설조)와 합동징수사찰주지 연석회의가 정부를 향해 초강경 입장을 밝히며 이어 중앙종회도 강경대응을 결의함으로써 국립공원에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의 '분리징수'를 놓고 심화돼 온 종단과 정부의 마찰이 공원존폐의 위기로 치달고 있다.

조계종의 초강경 대응은 1970년 공원 입장료징수 초기부터 제기 되어 온 '분리징수'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어 앞으로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계종이 국립공원지역내의 사찰 소유 토지를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은 불교계의 재산권행사와 1962년부터 시행했던 문화재관람료의 사찰 단독 징수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대목이어서 정부로서는 상당한 난제를 떠안은 꼴이 되었다는 분석이다.

조계종은 전체 국립공원지역에서 사찰 토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8.3%로 추산하고 있다. <표 참조> 국립공원의 경우 15.5%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립공원의 경우는 13.6%가 사찰토지로 파악되고 있다.

사찰의 토지가 공원전체 면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공원의 기능과 문화재보유등의 상황을 감안하면 공원지역내 사찰소유 토지의 중요도는 매우 높다. 때문에 산문폐쇄와 사찰토지의 공원지역 제외는 공원존폐의 간격을 흔드는 조치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조계종은 헌법소원등의 조치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만큼 우선적으로 '국립공원의 입장료 폐지'에 초점을 맞춰 대정

부 대응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공원입장료의 폐지 자체가 합동징수와 분리징수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없애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국립공원을 비롯한 각종 공원의 입장료에 대한 폐지 여론은 그간 심심찮게 대두되어 왔다. 공원 출입은 국민의 주권행사라는 측면에서 불교계와 사회단체 산악단체 지역주민단체 등이 꾸준히 폐지를 주장해 왔던 것.

자연공원법 제28조(비용부담의 원칙)에도 '공원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립공원에 관한 것은 국가의 부담으로,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것은 당해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조계종이 공원입장료의 철폐를 주장하는 것은 90년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문화부장관이 종단과 '합동징수를 행정지침으로 한다'고 합의한 내용을 정부측이 먼저 파기한 이상 시행령에 의한 입장료의 징수도 거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에서 기인하고 있다.

조계종의 초강경대응에 대해 정부측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분리징수 강행'에 따른 조계종과 정부의 마찰은 조계종이 정한 '데드라인'으로 10월15일 이전에 정부측이 최선의 방안을 내놓지 않는 한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공원내 사찰토지

공원	사찰토지	점유율
지리산	6351	14.42
계룡산	600	9.81
설악산	2500	6.70
속리산	4110	14.50
제장산	2086	27.41
가야산	3330	41.51
덕유산	400	1.83
오대산	5700	19.10
주왕산	3693	34.98
북한산	264	3.36
치악산	090	0.49
월악산	610	2.14

부처님은 발우 속에서 빈가라를 나오게 하였다. 귀자모는 반갑고 기쁜 마음에 그 아들을 얼른 부여 안으려 했다. 그러나 부처님은 돌려주지 않았다. 귀자모는 빨리 돌려 달라고 애원했다. 그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만일 삼귀오계를 받고 앞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귀자모는 부처님 말씀대로 하였다. 그는 서약을 하고 아들을 돌려받았다.

이 인연으로 귀자모는 불교에 귀의하여 해산과 유아양육의 신이 되었다.

최근 '박초롱초롱 빛나리'라는 긴 이름의 8살짜리 여자아이가 유괴되었다. 박양의 어머니는 통곡하다못해 실신할 정도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아직도 우리 기억에 살아있는 두 형이 어머니와 개구리소년의 어머니들은 울 추석에도 목이메일텐데... 나리양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하루속히 엄마 품에 안기길 바라며 유괴범들에게 당부한다.

"포악한 귀자모가 유아양육의 신이 되었듯 현대판 귀자모가 되어 주십시오."

귀신왕 반사가의 아내인 귀자모(鬼子母)에게는 1만명의 장사 아들이 있었다. 그 귀자모는 남의 자식을 마구잡이로 잡아 먹었다. 사람들은 애간장을 태우다못해 부처님께 호소했다. 부처님은 귀자모의 제일 막내 아들 빈가라를 잡아다 커다란 발우 속에 가두었다.

귀자모는 온 천지를 소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으나 도저히 찾을 길이 없었다. 귀자모가 슬픔에 잠겨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알려주었다.

"부처님은 일체를 아는 지혜를 가지셨으니 그분에게 물어보십시오."

귀자모는 부처님께 나아갔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1만명이나 되는 아들 중에 한명을 잃었다고 그토록 비탄에 빠져 찾아다니느냐. 세상에는 아들이 하나 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많아야 셋이나 다섯명이다. 그런데 너는 그런 귀한 아들을 잡아먹지 않았느냐?"

귀자모는 찰희의 눈물을 흘렸다.

"만일 제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로 남의 자식을 잡아 먹지 않겠습니다."

목어

현대판 귀자모

분리징수 파문 원인

조계종 관료로 10년간 동결 '인상 불가피'
공 단 인상억제 일방적 분리징수 '무리수'

이번 분리징수 파문의 근원은 조계종 관료위원회가 7월1일부터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를 인상한데 따라 정부측이 인상억제의 방법으로 분리징수를 강행한데서 비롯됐다. 거기다가 문화재관람료의 인상에 따른 민원을 이유로 일방적인 분리징수를 강행한 공단의 이사장이 일부 해당사찰을 방문, 관람료 인하를 종용하며 분리징수 강행을 주장함으로 조계종의 거센 반발을 샀던 것.

조계종의 관료로 인상조치는 작년 7월 관람료의 자율화가 법적으로 보장된데 따라 그간 5년 내지 10여년간 묶였던 관람료를 현실화 시킨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됐다. 이 조치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인 방해작업을 펴며 분리징수의 카드를 쓴

데 대해 조계종은 '이미 1962년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지역에 1970년부터 공원입장료를 추가징수함으로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주어 왔다'고 전제, 분리징수 문제의 단서는 정부측이 제공한 점을 강도높게 환기시키고 있다.

사실 국립공원 입장료는 91년 이후 해마다 1백원씩 인상돼왔다. 공원입장료는 공공요금이라는 명분아래 전국립공원이 해마다 일률적으로 인상징수 해 온데 비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10여년간 적게는 4백원에서 많게는 8백원선을 그대로 유지해 왔었다. 이같은 추이를 미루어 볼때 이번 인상조치는 관람료의 '현실화'라는 명분에도 사실상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다.

임연태 기자

- 97년 6월 20일 - 관람료위원회임시회의, 관람료인상결의(7월 1일시행)
- 7월 1일 - 관리공단, 관람료인상시 분리징수 각 관리사무소에 지침하달
- 7월 15일 - 백양사 관람료인상, 분리징수 시행
- 7월 31일 - 국립공원 관람료사찰주지회의, 인상 8월 1일~16일 시행 결의
- 8월 1일 - 화엄사, 천은사, 연곡사등 관람료 인상
- 8월 7일 - 지리산남부관리소 화엄사등에 분리징수 통보
- 8월 14일 - 총무원, 내무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항의공문 발송
- 8월 20일 - 총무원, 분리징수에 대한 대응지침 해당사찰에 발송
- 8월 24일 - 경남 관리공단이사장 신희사 방문, 신희사 인상보류
- 8월 26일 - 경남 이사장 감사, 신원사, 법주사 방문
- 8월 29일 - 법주사, 공단측 분리징수 강행에 1차 산문폐쇄
- 8월 30~31일 - 법주사, 인상된 금액으로 합동징수, 산문폐쇄 보류
- 9월 1일 - 법주사, 공단측 분리징수재개로 2차 산문폐쇄, 입장료 폐지, 경남 이사장 퇴진 1천만인 서명운동 돌입, 관리공단, '관람료 안내리본, 완전 분리매표' 보도자료 발표
- 9월 2일 - 조해남, 내무부장관 조계종 총무원 내방, 법주사, 사찰측 단독으로 합동징수
- 9월 3일 - 관람료위원회, 합동징수사찰주지연석회의, 강경대응 결의
- 9월 4일 - 조계종 중앙종회 강경대응 결의

조계종 총회 분리징수 토론 중계

4일 개최된 조계종 128회 임시중앙종회에서는 국립공원내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해 2시간에 걸쳐 뜨거운 토론이 이어졌다. 분리징수 파문에 대한 중앙종회의 강경대응 결의가 나오기까지 총회위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해 중계한다.

"이 기회에 교권찾자"
"Yes, 법제화 약속했었다"

○...이번 사태로 종단을 흔드는 정부의 시각이 드러났다. 이는 재산권의 침해인만큼 이번 기회에 교단의 주권을 찾자.(설정스님 총회위원장)

○...국립공원내에서 사찰이 차지하는 토지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해야한다. 서울의 명동 땅값이 괜히 비싼 것이 아니듯이....(정우스님)

○...대선을 앞두고 분리징수로 종단을 자극하는 지위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화법스님)

○...강력대응과 결의문도 좋지만 이에 투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정대스님)

○...인본들이 사찰을 수입에만 신경쓰는 곳인양 보도하고 있어 큰 문제다. 종단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법등스님)

○...총회지역에서의 언론들도 사찰의 사정을 잘 모르고 상당히 불리한 보도로 일관하고 있다. 대국민 홍보를 서둘러야 한다.(장곡스님)

○...이 문제는 6공 이전부터 제기돼 온 것이다. 합동징수가 법제화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삼현대통령이 민자당 총재로 있을때 법제화를 약속했는데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다.(정우스님)

○...사찰방화가 자행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가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불교계가 행정부와 이회창 신한국당 대선후보를 함께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해야한다.(현근스님)

○...산문폐쇄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사찰의 문화재관람료나 공단의 공원입장료 둘 다 징수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출토록 촉구하자.(성문 명진스님)

"심청정 국토청정 실현 앞장"

전국불교산악인협 손현 수 회장

수요 인터뷰

13개지부 25지회 결성 지정도량 '홍은사' 창건

-오는 10월 3일 발대식 이후 어떤 사업을 펼치게 됩니까.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취지아래 △산림보호 운동 △불교문화유산 및 수행도량 보호 △청정국토 개구기 △한 산악회 한 산 지키기 △사회복지사업 △자비도사상 선양 및 인재양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 불교산악인협이 7월 19일 안동 홍은사를 공식 수행도량으로 지정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분회는 창립한지 석달만에 전국 13개지회에 25개 단위산악회를 두고 1만5천여 회원을 확보한 단계로 내실을 다지고 있



습니다.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활동하다 보니 한 곳에 모여 친목을 도모하면서 수행할 공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 홍은사 건립을 발원한 동기는.
▲저의 시조인 신라 국효(國孝) 홍효공(弘孝公, 孫頌)의 뜻을 받들어 불교의 자비도사상을 연구 발전시키고 후학들이 널리 수행정진할 수 있는 수행도량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6월 1일 본회 회장을 맡으면서 회원들이 전용 수행도량이 필요하

다는 의견을 피력해 홍은사를 협회지정도량으로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 홍은사 불사연혁과 규모는.
▲지난 94년에 부지 물색에 나서 이듬해 3월 경북 안동시 임하면 오대리 신변지에 총 1천5백여평의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같은해 8월 건축 허가를 받아 지난해 3월 기초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는 10월 3일 낙성법회를 거행하면 1백5십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수행도량이 탄생하게 됩니다.

- 홍은사 운영방안은.
▲본회 회원들이 마음놓고 들러 수행과 산행을 통해 심신을 정화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수행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연수회나 수련회 장소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 불교산악인협이 출범당시에는 민주산악회와 같은 정치성향의 단체가 아니라 하는 우러가 있었는데요.
▲제가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회 부의장이란 소임을 맡고 있는 있지만 이미 나이가 들어 정치에서 손을 떼 상태입니다. 창립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철저한 수행모임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경>

관악산 관음사 중창불사 회향 법회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금번천여년의 역사를 이어온 관악산 관음사가 신도님들의 지극한 정성과 동참으로 대웅전을 비롯하여 삼삼각, 용왕각, 명부전, 요사채 등에 대한 20년 중창불사를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계의 원로래덕 스님과 사부대중을 모시고 불사 회향 법회를 갖고자 하오니 두루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간망하옵니다.

- 법회 안내 -

- 신도법회 : 신중법회~매월 초하루(음) / 지장법회~매월 18일(음)
- 학생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어린이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불교대학 : 매주 화요일

■ 행사 안내 ■

- ▶ 일 시 : 불기 2541년 9월 24일 (음력 8월 23일) 오전 11시
- ▶ 장 소 : 관음사 경내
- ▶ 연락처 : (02)582-8609 (관음사 종무소)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519-3

관음사
관음사
주 지
신도회장
박 종 하
유무심화
합장
합장